

민선8기 공약 확정... 수장 교체 변화

문화공청회 소통 움직임
도립예술단 신설 목소리
제주문화재단 다사다난
향후 5년 정책 방향 청사진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약 실천계획이 확정됐다. 교체기를 맞은 도내 문화계를 이끄는 문화·예술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바뀌었고, 제주문화예술의 향후 5년(2023~2027) 정책 방향 청사진이 제시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 여름 출범한 제12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문화정책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문화부민선8기 도정 과제는 관련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담기며 이행에 속도를 낸다. 확정된 과제는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확산 ▷제주형 K-콘텐츠 산업화와 아세안+a 국가 교류 활성화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읍·면 지역 생활복합문화 공간 조성이다. 이 중 삼성혈,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신상공원 일대 특성과 조성 및 신상공원 재정비, 삼성혈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제주 역사문화지구 기반 조성 과 자연사박물관 연계 주변 시



▲ 이달 열린 '2023-2027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전략 마련 토론회'.
▼ 지난 7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마련한 '문화정책 공청회'.

설을 활용 확장하는 '제주역사관 건립'의 순항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선 여전히 문화예술분야 확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8월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수열 이사장에 이어 10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박찬식 관장과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김태관 원장이 취임했고,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은 내년 11월 18일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다사다난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고, 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적 지급 등 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나며 신뢰도가 하락했다. 이에 재단은 경영혁신 추진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아트 플랫폼 조성사업'은 올해도 도마위에 올랐다. 올 초 도의회가 매입 절차 중단을 촉구한 '재밋섬' 건물 매입을 강행하며 도의회의 질타를 받았고, 여기에 재단을 상대로 건물 매입 중도금 및 잔금 지연배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이 전해지기도 했다. 당초 재단이 올해 안 예고했던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제주예총은 지난 3월 '(가칭) 제주

예술인회관'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다. 제주예총이 내년 1월 추진위 출범 계획을 잡고 있어 건립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립극단, 국악단, 국악관련 악단 등 도립예술단 추가 신설 목소리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지만 도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가칭)제주학진흥원' 설립 추진도 일단 멈춤 상태다. 제주도 문예진흥원은 30년 넘은 노후화가 진행중인 문예회관의 공간 활용 및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중광미술관 건립'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부적격'으로 두 차례 탈락하며 제동이 걸렸고,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신축) 사업은 두 번째 도전에서 평가 문턱을 넘으며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안) 확정예 앞서 이달 제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도내·외 전문가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자들은 계획(안)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연도별 촘촘한 계획 수립, 연차별 모니터링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김정운 작품

올해 마지막, 새해의 시작을 잇다

연말연시 전시 풍성

며칠 남지 않은 2022년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에 걸쳐 관람객을 맞는 전시가 다채롭다. 올해 마지막날까지 꽉 채우는 전시는 연초에도 새롭게 이어진다.

▶김정운 도예전 '일상속 지금.'=김정운 작가의 여섯 번째 도예전 '일상속 지금.'이 갤러리카페 플레이스닷컴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작업 내용을 기반으로 작품으로서만이 아닌 일상의 사소하고 익숙한 사물의 형태로 나타난 작업물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색채 및 독특한 질감이 담긴 작품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는 작가의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이어진다.

▶이지현 개인전 'J에게-나는 지금 제주로 간다'-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기내 잡지를 통해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그렇게 전시를 위해 기내잡지 30권의 책이 해체됐고, 다시 복구돼 새로운 시각적 오브제로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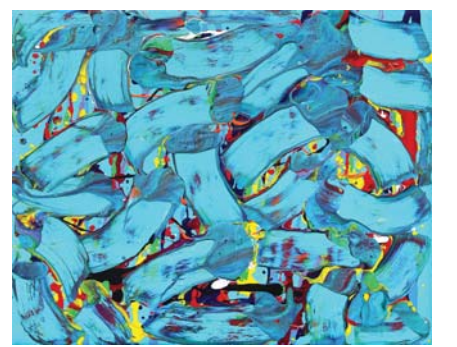
책을 소재로 작업을 해 온 작가는 얼마 전에 무안군오승우미술관 개인전 때 1000여권의 책을 해체해 책장에 꽂아 보여주고 심지어 웃으로 만들어 보여준 바 있다.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돌담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현미숙 첫 작품전 '學海展'=현미숙 작가가 코로나19로 힘들 때 내면의 힘을 일깨우는 귀한 치료제

가 됐다. 작품들을 내보이고 있다. 첫 번째 작품전 '學海展'을 통해서다.

어려운 시기에 서예로 소통하고자 준비했다는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갤러리 운담에서 만날 수 있다.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며 초대장을 띄웠다.

▶제주 도예가회 연말전 '새해福 많이 담으세요'=제주도예가회가 올해 마지막 전시이자 새해를 맞이하는 전시로 준비한 판매전이다. 2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심현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엔 각 도예작가들의 개성이 담긴 머그 혹은 플레이트 등 실용성 높고 선물하기에 좋은 작품들이 선보인다.



고민철 작품

▶고민철 개인전 '환희-바람속으로'=고민철 작가가 열네 번째 개인전을 연다. 내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100호, 150호, 300호 등 대작 위주의 작품을 포함 14점을 만날 수 있다. 구상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추상작품들로 작가의 내면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은지기자

"지금 이 순간, 일상을 소중히"

제주대 극예술연구회 창립 40주년 기념 공연
'우리읍내' 선포... 내년 1월 7·8일 문예회관에서

제주대학교 극예술연구회가 40주년 기념 공연 '우리읍내'를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조명한다.

이번 공연은 손튼 와일더의 미국 배경 원작을 우리나라 배경으로 바

꾸어 진행된다. 오세곤이 번안했고 김소영이 연출을 맡았다.

'우리읍내'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다. 가상의 평범한 마을에 두 가정을 중심으로 성장과

사랑, 결혼과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총 3막에 걸쳐 다룬다. 1막에서는 준태네와 영희네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2막에는 준태와 영희의 사랑과 결혼, 마지막엔 마을 사람들의 죽음을 보여준다.

연출자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3년여간의 시간동안 우리들은 평범한 일상을 빼앗기고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며 "이제 곧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우리들에게 '우리읍내' 공연은 우리도 모르게 지나치는 순간순간들, 함께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 맛있는 음식, 시시콜콜한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일깨워줄 것"이라고 전했다.

공연은 내년 1월 7일(오후 7시)과 8일(오후 4시)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펼쳐진다. 관람료는 1만원이다.

오은지기자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서귀포시체육회장



김 태 문

서귀포시체육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적십자봉사회
회장 천숙희 외 적십자봉사회 회원 일동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서귀포시체육회장



김 태 문

서귀포시체육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탐라대학교 정책개발원
최고정책과정 3기 원우회
회장 노 연구 외 원우 일동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제주시체육회장



이 병 철
(대정정우회 부회장)

제주시체육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제주시 대정정우회
회장 송진권 외 회원 일동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제주시체육회장



이 병 철

제주시체육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주시 계성군과 광청종친회 일동